

# 익산시, 내년 본예산 편성 규모는?

### 일반회계 세입 2018년도 9802억원 대비 1조376억원 증가

익산시가 23일 2019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 예산편성 방향 등을 밝혔다. 익산시 재정여건은 건설투자 부진 및 미국 금리인상, 통상마찰 등 국내 경기불안으로 따라 지방재정도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가는 재정수요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도 예산편성 부담이 큰 상황이다. 2019년 익산시 예산규모는 2018년 1조 9139억원 대비 658억원(6.0%)이 증가된 약 1조 1571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376억원, 기타특별회계 110억원, 기타특별회계 1,085억원으로 추계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2018년도 9,802억원 대비 1조 376억원 규모 약 574억원(5.9%)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국·도비보조사업 매칭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지속 증가로 각종 정책 추진을 위한 투자

수요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복지 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올해 익산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 37.0%를 차지했으며 내년에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장애인 연금 조기 인상 등 국가의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책으로 지방비 부담률이 증가할 전망이다.

더불어 일자리 및 복지정책 등 국도비 사업을 포함한 법정경비를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세입 여건은 불확실하고 세출 비중은 증대되고 있어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 배분과 세출사업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중박·유사사업 및 효과성이 낮은 사업의 축소·폐지와 전년

도 결산기준 집행행위를 반영해 불용 및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부진사업은 전년 대비 20% 이상의 예산 삭감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과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편성 한도액 기준을 준수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특히 민선 7기 핵심 가치인 시민 중심의 시정에 초점을 맞추고, 6개 분야별 시정운영방향에 맞춰 각 분야별로 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각 분야별 주요사업으로는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구도심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청년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립, 청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등의 청년정책 지원, 4차 산업 혁명시대의 농정혁신과 선진화를 위한 스마트팜 확대,

북부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건립과 시민 중심 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청원제도의 시행, 출산과 보육, 맞춤형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간제 보육 시설과 어린이집 무상보육 확대, 평생학습관 신축과 익산 외국어교육센터 설립,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관광도시와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필요한 백제 왕도의 정체성 확립 사업,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 사업, 푸른 도시숲 조성 사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일 안전행정국장은 "재정사업 관리 강화 및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통해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소중한 세금이 쓰일 수 있도록 2019년도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주요시책에 대한 각 부서의 예산 요구안을 토대로 2019년도 예산안을 마련해 11월 21일까지 익산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 군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기에 총력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제 213회 임시회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2일간 제213회 마지막 임시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업무보고 실적과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꼼꼼히 따져 장기적인 안목의 사업 검토와 새로운 대안제시를 하는 등 지역 현안문제 심의에 역점을 두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마치고 폐회했다고 밝혔다.

특히 23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한국GM 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장지도 발전소부지 환원 건의문', '공공

기관 군산이전 촉구 건의문', '새만금산업단지 장기 임대용지 임대료 인하 건의문' 등 4건의 건의문 채택과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먼저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한국GM 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대한민국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GM본사, 한국GM 본사에 전달했다.

한편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건의문 채택과 함께 김영일 의원이 시정질문을 김중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 민선 7기 공약이행 실천계획 보고회 개최

군산시가 23일 시청 민방위 상황실에서 특정한 자립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민선 7기 공약이행 실천계획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김임준 시장, 이승복 부시장을 비롯한 국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이 시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과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키우는 방법, 시민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 5개 분야의 시정방향을 이뤘다는 각오로 각 국별 보고회가 진행됐다.

주요 공약으로는 ▲시민감사관 구성을 통한 시민감사 추진 ▲시민 참여 플랫폼 구축 ▲청년 창업지원 ▲GM 군산공장 전기자동차 생산기지로 전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도시숲 조성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군산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

축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치 지원 ▲군산시 푸드플랜 계획 수립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여성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 개선 등 169개 세부사업으로 구체화된 실천계획과 함께 타당성, 재원 마련 등을 논의하고 점검했다.

특히 이미 발 빠르게 추진돼 지역 내 호응을 얻고 있는 공약 사업인 ▲지역화폐 전면유통 ▲찾아가는 동네 문화카페 평생교육 사업과 관련해 추

진부서를 격려하고 미비점 등을 보완해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것을 주문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공약 실현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시민의 공감 여하에 달려있다"며 "세심한 준비과정을 통해 마련한 것인 만큼 임기 내에 공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센터장 박남균)는 지역 고용 및 산업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정책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참여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내용은 고용 위기업종 퇴직자 취업활성화 방안,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방안, 중소기업 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과 함께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약취약계층의 취업 활성화 방안, 문화·체육·환경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등 군산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시책) 및 사업 아이디어이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군산시민, 기

관, 단체 등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11월 9일까지 제안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첨부해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로 방문하거나 이메일(jt@camric.or.kr)을 통해 응모하면 된다.

제출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의 참신성(혁신성), 사업추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대상 1명(200만원), 최우수상 1명(150만원), 우수상 2명(각 100만원), 장려상 3명(각 50만원)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gun-sanj.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150-1306)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 노인종합복지관 일일명예관광 체험

익산시의회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은(이하 박위원장)은 지난 22일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병기) 일일 명예관광으로 위촉받고 관광업무수행했다.

일일명예관광 체험을 마친 박 위원장은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김병기 관장님 이하 복지관 임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고 복지관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 뒤 "오늘 체험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노인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 익산시, 말산업 육성 용안면 현지 답사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전국 4번째 말산업 특구(익산시 외 4개 지역)로 지정받은 익산시가 말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23일 말산업 현장(용안면)에서 현지답사와 첫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익산시는 100억 원의 사업비 중 일정부분의 국비지원을 통해 VR 말산업체험관 건립, 재활승마 인프라 구축 등 이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농림축

산식품부로부터 공공승마장 및 승마길 조성사업 등을 위한 22억 원의 사업이 기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들은 우리시 말산업 발전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관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 말산업을 레저 관광 산업을 아우르는 융복합 산업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 '모현 오투 그란데 프리미어' 아파트 분양일정 변경

익산 제일건설이 시공하는 '모현 오투 그란데 프리미어' 아파트 분양일정이 회사측 사정으로 변경됐다.

제일건설 분양팀은 "분양일정은 특별공급은 10월 29일(월)로, 1순위 청약은 10월 30일(화)로 2순위 청약 10

월 31일(수)로 당첨자발표는 11월 6일(화)로 계약일은 11월 19일(월)~11월 21일(수)로 각각 변경됐다"고 밝혔다. "분양일정이 변경된 만큼 청약 희망자는 차질 없기를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